



송영훈 의장, 관권선거 목인 의혹에 “송구”

어제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
칭다오 향로 투자심사 누락 “절차상 문제 있어”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자신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전·현직 공무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는데도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송 의장은 6일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관권선거 목인 의혹으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사퇴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보다 무거운 것이 국민의 신뢰로, 비판과 의혹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무겁게 마주하겠다”며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

체대화방에 언론사 여론조사 시 오영훈 전 지사를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이미지가 게시되는 등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져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또 선거가 끝난 직후 해당 대화방에 송 의장도 참여하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비판이 잇따랐다.

송 의장은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선 “의회는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닌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 권한이 의회에 있는만큼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간 제기된 쟁점을 충분히 검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장은 12대 도의회가 재정투자 심사를 누락한 제주~칭다오 향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장태봉기자

로 개설 협정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의회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뒤돌아 보면 절차적 문제들이 있었다”며 “(제주~칭다오) 향로 운영을 중단할지, 계속할지 어느 쪽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채워진 데 대해서는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됐고, 지역구 의원들은 교육위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긴 하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교육위에 배치되더라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송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을 차지해 같은 당 소속의 위성곤 제주지사에 대한 견제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결코 타협이나 양보가 없을 것”이라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바로 설 때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결국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기자간담회 첫 민생 현장 방문 행보로 이날 새벽 제주시수협 위판장을 찾아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의회 예결위원장 김봉현·윤리위원장 하성용

제1기 예결위·윤리위 구성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봉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성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이 각각 선출됐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예결위 위원장에는 김봉현 의원 (민주당, 애월읍갑)이 선출됐다. 제1기 예결위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강정범 의원 (오라동), 김봉현 의원 (아라동갑), 박안수 의원 (삼양·봉개동), 박지은 의원 (비례대표), 박호형 의원 (일도2동), 송창권 의원 (외도·이호·도두동), 양경호 의원 (노형동갑), 오경남 의원 (비례대표), 오은초 의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임혜주 의원 (비례대표),



김봉현 의원 하성용 의원

한동훈 의원 (표선면)과 국민의힘 박왕철 의원 (비례대표), 이남근 의원 (한림읍) 그리고 무소속 김덕홍 의원 (조천읍)이 선임됐다.

윤리위는 하성용 위원장과 임혜주 부위원장 (민주당, 비례대표)을 중심으로 민주당 강동우 의원 (구좌읍·우도면), 김기환 의원 (이도2동), 김대진 의원 (동홍동), 양홍식 의원 (성산읍), 이정심 의원 (노형동읍), 이정철 의원 (대정읍), 한동수 의원 (이도2동읍)과 국민의힘 강충룡 의원 (송산·효돈·영천동), 이남근 의원 (한림읍)이 선임됐다.

오소병기자 sobom@ihalla.com

민주당 ‘상임위 가동’·국민의힘 ‘보이콧’

7월 임시국회 ‘반쪽’ 개최… 원 구성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소집 요구로 7월 임시국회가 6일 개최됐지만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며 ‘반쪽 국회’로 출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국회 의사 일정 전면 거부 방침을 “국민의 삶과 미래를 불모로 하는 몽니”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복구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당과 상의 없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독주’로 규정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를 파

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주의 원칙을 무시한 채 원 구성을 강행했다며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계속 열던데 우리는 참석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도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간 소통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당장 가시적인 진척은 없지만 물밑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서 만나는 꽃자왈
꽃자왈공유화재단, 광화문서
홍일화 작가 초대전… 31일까지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수도권 관객들에게 예술 작품을 통해 제주 꽃자왈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한 홍일화 작가 초대전 ‘제주 생명의 숲, 꽃자왈의 숨’이 6일 서울 광화문 라이나타워 1층 로비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31일까지(주말 제외)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제주 숲의 사계절을 8점의 작품으로 하나의 이야기처럼 풀어낸다. 특히 너비 24m, 높이 2.2m에 이르는 13폭 크기 회화 작품은 관람객에게 마치 제주의 깊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홍 작가는 2019년 제주 레지던시를 계기로 꽃자왈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홍 작가는 작가 노트를 통해 “내가 꽃자왈에 온전히 매료된 이유는 오직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얽힘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 기획한 홍일화 작가 초대전 ‘제주 생명의 숲, 꽃자왈의 숨’이 6일 서울 광화문 라이나타워 1층 로비에서 막을 올렸다. 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이어진다. 부미현기자

과 공존의 선’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험준한 돌덩이 위에서 치열하게 생존하기 위해 바위를 역적으로 감싸안은 판근, 서로 다른 종의 나무가 경계를 허물고 힘을 합한 연리목, 그리고 숲의 숨통이 되

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는 솜골까지. 이 웅장한 혼돈 속에는 옹고그름의 잣대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분열의 전쟁도 없다. 그곳에는 오로지 생존을 향한 어울림, 즉 아름다운 공생만이 숨 쉬고 있다”

고도 적었다.

이번 전시는 2025년부터 꽃자왈의 보전 가치를 알리는 데 함께하고 있는 라이나סה보험이 후원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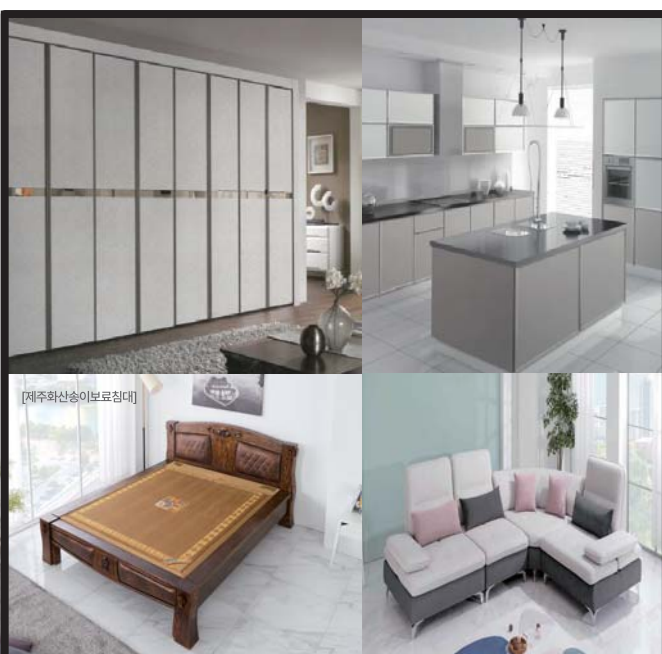
머무는 시간이
행복해지는 공간,
당신의 이야기로 채우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시공!
믿을 수 있는 인테리어, A/S 보장

동서인테리어

건축 / 실내 토탈 인테리어 / 욕실 / 거실 / 상가 등

시공문의 064) 758-0015



일상이 새로워지는
오늘을 담은 가구

우수한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 A/S보장
신구간 맞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동서가구

싱크대 제작 / 불박이장 / 침대 / 소파 / 가구 일체

구입문의 064)758-0065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